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임기 시작

6월 27일 종로 법륜사서 고불 후 본격 행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임기를 시작하며 집행부 인사를 단행했다.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태고종이 대중 포교 종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태고종 총무원 청사인 서울 종로 사간동 법륜사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헌향하고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참배 후 집무실로 자리를 옮긴 상진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부장 및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상진 스님은 △사서실장 원오 스님 △기획실장 영범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교무부장 정안 스님 △재경부장 일공 스님 △문화부장 선광 스님 △홍보부장 서리 원심 스님 △사회부장 도휘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비구니부장 현담 스님 △전법사부장 심원 전법사를 내정했다.

총무 · 교무 · 재경 · 규정 · 전법사 부장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유임됐으며, 사서 · 기획 · 문화 · 홍보 · 사회 · 비구니 부장은 새로 이름을 올렸다.

국장단으로는 △사서국장 일묵 스님 △교학처장 철오 스님 △총무국장 정각 스님 △교무국장 진광 스님 △규정국장 도우 스님 △재경과장에 시암 스님 △한국불교신문 주간 승한 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법무실장에 홍창수, 문사팀장에 인용민, 정책특보에 이상곤 씨를 각각 임명했다.

이후 상진 스님은 종회 인준을 앞두고 있는 재경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비롯해 새로 구성된 제28대 집행부 스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부 · 국장 스님들에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연임한 총무부장 · 규정부장 등에게 "앞선 호명 스님 원장 당시에 소임을 잘 살아주셔서 다시 임명하게 됐다. 종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임명된 사회 · 홍보 · 문화부장에게는 "그간 태고종에는 대사회적 사업과 종단 홍보, 행사 의전에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태고종이 사회를 위한 실천사업과 종단 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종단 행사가 여법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부장이 기틀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6월 27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집행부 인사 단행 직후 가진 인사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부국장 인사… "소임 최선" 당부
"태고종, 대중포교 종단으로 발전"
오는 7월12일 이 · 취임법회 예정



상진 스님이 법륜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헌향을 하고 있다.

임명식 직후 상진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태고종을 '포교종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상진 스님은 "앞으로 4년 동안 종단 행정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는 데 만감이 교차한다. 벅찬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 "태고종이 대중포교 종단으로서 거듭나고 좋은 종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만 잘한다고 종단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종도들 스스로도 태고종도임을 자각하고 발전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임기를 시작한 상진 스님은 지난 4월 18일 열렸던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상진 스님은 62.1%라는 지지율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스님은 1991년 4월 철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2011년 11월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했고, 2022년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양주 청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한편, 태고종 제27 · 28대 총무원장이 · 취임법회는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양주 청련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태고종 · 천태종은 일불제자, 전법 앞장"

6월 26일, 관문사서 환담 나눠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6월 26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만나 함께 불교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상진 스님은 서울 관문사에서 덕수 스님을 방문해 "태고종이 과거 내홍으로 시끄러워 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폐를 끼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덕수 스님은 "종단 살림이 클수록 소리도 큰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태고종과 천태종 모두 부처님 제자인 만큼 함께 포교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에 상진 스님은 "앞으로 태고종도 열심히 노력해 종단협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서울 관문사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사진 오른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

韓 불교계 "조선인 희생자 유골 봉환 노력"

한국불교종단協 6월 25일
日일승사서 위령재 봉행

유골 발굴 앞장서온 일승사
한국불교계 위령재 78년 만
진우 스님 "늦은 추모, 죄송"
'강제동원전시관' 재건립 지원



일본 홋카이도 일승사에서 조선인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진=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일승사를 찾아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영가를 천도했다.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 국내 각 종단이 힘을 모아 일본에 안치된 선조들을 늦게나마 추모한 것.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는 '한국불교지도자 일본 북해도 불교문화교류' 일환으로 6월 25일 홋카이도 후카가와시 일승사에서 '북해도 조선인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일승사는 1976년부터 일본의 강제동원이 인권범죄임을 알리며, 유해발굴과 봉환에 앞장선 일본사찰이다. 2008년과 2015년 100명이 넘는 조선인 희생자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불교지도자들이 일승사를 찾아 위령재를 봉행한 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처음이다. 위령재에서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후손들의 뒤늦은 추모에 죄송한 마음을 표했다. "너무나도 늦게 고인들을 추모하는 것이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일본 사찰에 봉안된 조선인 희생자 유골을 고국으로 봉환하는 데 한국불교가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승사 주지 토노히라 요시히코 스님은 한국불교 스님들이 최초로 위령재를 봉행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일승사는 조선인 희생자 유골 봉안함 3위를 불단으로 이운했다.

한국 전통식으로 삼귀의례를 올리고 반야심경을 독송한 사부대중은 묵념으로 희생자에 대한 예를 표했다.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협 회장단은 헌향을 하며 영가를 위로했고, 부회장 호명 스님이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렸다.

토노히라 요시히코 스님은 홋카이도 강제동원전시관이 폭설로 붕괴되면서 일승사에 조선인 희생자 유골과 위패를 봉안했다. 이에 전시관 재건립에 나서 일본 전역과 한국에서도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노히라 스님의 얘기를 전해들은 종단협 대표단은 강제동원전시관 건립기금을 전달하고,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개인적으로도 건립기금을 기탁했다. 윤호섭 기자

청소년용 '하이, 화쟁_라이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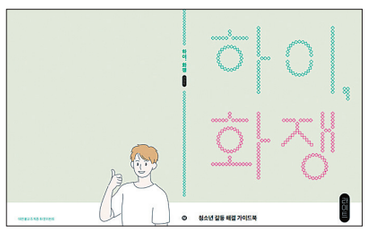
화쟁위, 전국교법사단 함께 제작
"청소년 일상 갈등 해결에 도움"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정문, 이하 화쟁위)가 전국교법사단(단장 김덕진 교법사, 이하 교법사단)과 공동으로 청소년용 화쟁안내서 〈하이, 화쟁_라이트〉를 발간했다.〈사진〉

〈하이, 화쟁_라이트〉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화쟁위와 교법사단은 2020년 〈하이, 화쟁〉을 첫 발간하고 3년간 종립학교 시범수업을 진행한 후 교법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개정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갈등 대처 유형 찾기 △감정 찾기 △속마음 찾기 △화쟁으로 대화하기 △화쟁 대화 실습하기 △화쟁이야기_원효스님 깨닫다 등이다.

이 책은 '아빠와 아들 간의 진로 갈등', '엄마와 사춘기 아들 간의 갈등', '이성 친구와의 갈등' 등 일상의 갈등 사례를 영상으로 제시하며 갈등 해소 방안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끈다. 특히, 갈등 사례 영상에는 종립학교 학생 다수와 교법사들이 직접 출연해 학생들의 관심을 자아낸다.



각 장이 활동지 중심으로 제작됐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갈등 대처 유형을 알고 갈등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살펴보며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했다.

김가연 화쟁위원(광동고 교법사)은 "〈하이, 화쟁_라이트〉가 청소년들이 일상의 갈등을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임은호 기자

